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 1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 2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 3 주 예수님 맡겨 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 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 4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 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 후렴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맘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 1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삼시다
- 2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삼시다
- 3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삼시다
- 4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 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삼시다
- 후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탄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 담당

11/22(화)	11/23(수)	11/24(목)	11/25(금)	11/26(토)	11/28(월)
박성원2 재적안수집사	유창근 안수집사	소형석 안수집사	김근홍 재적안수집사	정호성2 안수집사	박윤일 안수집사

2022년 11월 21일(월)

이른아침예배

인도 : 최유진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176장 다 같 이
기 도 김 민 수 1
..... 안 수 집 사
성 경 봉 독 욥기 22장 21절 인 도 자
찬 양 주여 받으소서 새벽찬양대
설 교 『자애로운 초대인가? 잔인한 강요인가?』..... 최유진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25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욥기 22:21>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참고구절

<욥기 22:4~9>

- 4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나
5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6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혈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7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8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9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욥기 1:1>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
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로마서 7: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2년 11월 21일(월)

삶의 소망이신 하나님! 거친 풍랑 같은 고난 앞에 호흡이 있는 이 순간도 흐르는 내 눈물을 닦아 주시고, 따스하게 내 손을 꼭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거칠고, 사람에게 실망하여도 끝까지 달려가야 할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위로의 물줄기를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격려하며 주를 보게 하옵소서(히12:14).

새문안교회의 소망이신 하나님! 새문안 교회가 울고 있는 사람, 고통을 겪는 사람 곁으로 다가가 손 잡아주고, 그들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사역할 때 기쁨이 배가 되고, 고난이 반으로 줄어 들 줄 믿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교역자와 선교사의 사역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문안교회의 간절한 소망인 헌당예배를 속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속한 가정에 행복과 기쁨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과 평안의 샘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프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있고, 외롭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아픔이 있기에 허락하신 아픔과 외로움이 있음을 압니다. 한국교회가 아픔과 외로움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특히, 치솟는 물가와 코로나19로 시름하고 있는 가여운 이들을 위로하시고,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평화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